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소식

### ◆ 2010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신청안내

- 1년 구독료: \$40
- 신청방법: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문의바람
- 전화번호: 614-218-1702

### ◆ 이호영 구역모임 안내

- 일시: 1/16 (토) 저녁 7시 00분
- 장소: 이 바오로/ 박 안나 가정
- 주소: 5882 Haddler Ct.  
Dublin, OH 43016  
614-799-0743

### ◆ 청년 협의회 안내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

### ◆ 교우금 및 기타 납부금 안내

- 장소: 사제관 1층, 본당신부 사무실
- 신자분들께서는 사제관 1층 정문 우측편 에 있는 본당신부 집무실에 있는 재정위 원들께 납부금을 내시면 됩니다.

### ◆ 유아세례 안내

- 1/17 (일) 주일 미사후, 성당에서 거행 될 예정 입니다. 신청서는 사무담당에게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례회 모임 안내

- 일시: 1/24 (일) 주일미사 후
- 장소: 사제관

### ◆ 병자 봉성체 안내

- 일시: 1/17 (일)

###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5,0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359.00
교 우 금	\$900.00
감 사 헌 금	\$100.00

- ◆ 교우금: 이진학, 박귀영, 김도균, 김태형, 양희진 문창민
- ◆ 감사헌금: Mark P. Brown
-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359.00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님 세례 축일 January 10, 2010



<그리스도의 세례> 틴토레토 작, 유채, 1580년 경, 산 실베스트로 성당, 베니스, 이탈리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42,1-4,6-7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

화답송



제 2 독서 사도행전 10,34-38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15단 2명	29,047단 21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15단 2명	2/22/04-01/03/10 (304주)

☞ 총누계: 224,035단 12,846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1/10/10	1/17/10	1/24/10	1/31/10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안유신	박귀영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증거자의 모후	하늘의 셋별	바다의 별

### 오늘의 성가

♫ 입당: 1      ♫ 봉헌: 142  
♫ 성체: 162, 161      ♫ 파견: 479

## 알곡과 쪽정이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신수동성당 주임

하느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움이란 '사랑의 소중함'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 소중함의 무게를 감히 저울에 올려 놓고 달아보려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무게를 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며 '죄'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게를 달고,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고 또 무게를 달고, 성이 다르다고 또 무게를 달니다. 사람들이 발명한 저울 가운데 하나가 '자유경쟁'입니다. 자유도 좋은 것이고, 경쟁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무제한을 의미하거나, 경쟁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한경쟁시대'라는 그럴듯한 말을 온 세상에 퍼뜨림으로써, 모든 이를 싸움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술 더떠서 사람의 소중함을 시장에 내다놓고 사고파는 그런 상품 정도로 만듭니다. 그것을 '경쟁'이라 미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로 포장하여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무제한의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들은 '알곡'이라 하는데, 흔히 '경쟁력을 갖춘 사람'으로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투쟁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들은 '쪽정이'라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라고 혀를 참니다. 그렇게 사랑의 소중함은 계량화되어 그 무게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예수님의 뉘를 대신하려 합니다. 한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쪽정이로 만들고, 자신들은 알곡 행세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저울에 따르면,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조차 하찮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에 불과하겠지요. 태어난 출신 배경도 그다지 대단치 않고, 자란 환경이 귀족적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돌아가셨으니까요. 오늘 복음말씀은 그 예수님이(결코 쪽정이가 아니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알곡과 쪽정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쪽정이입니까?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알곡은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않으며, 그 대신 예수님의 장단을 맞춥니다.

## 안 내

###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에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 본당 신심단체 안내

	단 장	연락처
상지의 옥좌	안유신 레오	614-203-5046
증거자의 모후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바다의 별	김미영 타티아나	614-288-0907
하늘의 셋별	양희진 에밀리아	614-565-8430
로사리움 샤로네 성가대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